
실버금융개론-상품유형 I

(시니어라이프컨설팅 과정)

강남대 실버산업학부
교수 김병준
2020.03.01

노년기 재테크 상품유형별 플랜 I



노년기 재테크 상품유형별 플랜 I

➤ 노년기 상품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?

1. 금융상품의 비중을 높여라! [나이가 들수록 질병, 사고에 따른 급한 현금성 자금이 많이 필요해진다.]
2. 부동산투자는 가급적 자신의 보유주택에 한정! 건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대비용이 많이 들며 임차료수입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)
3. 금융자산은 60% 이상을 연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!
4. 위험자산의 비중(주식, 수익증권 등)은 자신의 나이에 맞게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동적 자산구성(Dynamic Asset Rebalancing)이 바람직!
5.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중복가입 배제!
6. 상속세,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안한 절세전략!

금융자산과 실물자산

➤ 금융자산(Financial Asset)의 특성

1. 유동성(Liquidity)이 우수: ‘유동성’은 현금과 교환되는 특성.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(Real Asset)은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다.
2. 가치가분성(Value Divisibility): 주식 1주, 채권 또는 수익증권 1단위와 같이 가치가 잘게 나누어진다.
3. 감가상각(Depreciation)의 대상이 아님: 건물, 기계장치 등은 내구연한에 따라 가치가 없어짐.
4. 노년기 소비생활에 적합한 수단: 젊은 시절에 비하여 질병 또는 사고의 발생확률이 커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.
5. 그러나 인플레이션 헤지(Inflation Hedge)기능은 금융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(단기금융상품 또는 채권 등은 헤지 기능 부족)

금융자산과 실물자산

➤ 금융자산(Financial Asset)의 종류

1. 단기금융자산(Money Market Instrument): 예 · 적금, CD, RP, BA, CP, MMF, CMA, MMDA 등 만기 1년 이하의 금리 상품.
2. 주식(Equity): 기업의 소유권 증서이며, 투표권(Voting Right)과 현금흐름청구권(Cash Flow Right)을 갖는 보통주, 현금흐름청구권만 있는 우선주(Preferred Share)로 분류.
3. 채권(Bond): 확정소득 증권이며 국공채, 회사채, 옵션부 사채, 전환사채(CB), BW 등으로 구성.
4. 수익증권(Fund):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대리로 유가증권 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상품.
5. 연금(Annuity): 특정 기간 이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금융자산. (종신연금, 확정기간연금, 상속형 연금 등)
6. 파생금융자산(Derivative Asset): 금융(실물)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선물, 선평, 옵션, 스왑 등

1. 단기금융상품

1) 예금(Deposit) 및 단기금융상품

◎ 보통예금과 저축예금:

-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(Demand Deposit)
- 연간 금리가 0.1% 또는 약간 그 이상으로 매우 낮다.
- ATM기 이용 출금, 온라인 자금이체 주로 이용.
- 그러나 이에 따른 수수료가 작은 상품을 이용하여야 함.
- 마이너스 통장 (대출금리가 대부분 높음)

◎ 정기예금과 정기적금:

- 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축수단
- 정기예금(Time Deposit): 1개월~5년 만기,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, 그러나 수익성이 매우 낮다. (금리 1.2~2.0%, 금리상승기에는 3개월마다 바뀐 금리가 적용되는 회전형 정기예금(Revolving TD)이 바람직.
- 정기적금(Installment Savings): 정기 · 자유적립식. 1~5년 만기 (은행권 금리 1.0~1.8%, 저축은행 2~2.4%), 5천만원 예금자보호

1. 단기금융상품

3) CMA와 MMDA

⊙ CMA(Cash Management Account):

- 1977년 미국 Merrill Lynch 개발한 MMF 대응상품. 즉, MMF의 환매 기간을 1일로 앞당기고 고금리(1~2%)를 제공.
- CP(Commercial Paper), 콜론, 금융채, 국공채 편입운용.
- 미국 FDIC의 지급보증 제외, 그러나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대상.

⊙ MMDA(Money Market Deposit Account):

- 1982년부터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CMA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상품.
- 운용형태는 CMA와 비슷하나 CP 대신 RP(Repurchase Agreement)와 NCD(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)를 편입.
- FDIC의 지급보증 대상 상품.

1. 단기금융상품

3) CP(기업어음)

⊙ 기업발행 단기 유통어음 증서:

- 신용등급 BBB이상의 기업들이 발행, 만기 3~6개월.
- 1천만원 이상 투자단위로 금리가 매우 높다 (연간 금리 2~3%, 2015)
- 할인식, 만기 일시 지급, 원금비보장.

⊙ ABCP(Asset Backed CP), FRCP(Floating Rate CP):

- MBS(Mortgage Backed Securities), ABS(Asset BS)와 같은 자산담보부 CP로 주로 신용도가 취약한 신용카드회사들이 2000년부터 발행.
-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이러한 ABS, MBS 등을 담보로 한 CDO의 부도에서 비롯됨. (악성 개인부채가 주로 신용카드에서 비롯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악성 부채가 이러한 ABCP의 자산)
- FRCP(미국): 1년 이상의 장기성 CP는 주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

1. 단기금융상품

3) NCD와 RP, 그리고 BA

⊙ NCD(양도성 예금증서,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):

- 1961년 미국 Citi은행 개발(한국은 1984년) 최저발행 500만원.
- 변동금리 채권 및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기준금리
(한국의 CD 유통수익률은 2015년 4월 3일 현재 1.85%)
- 만기 90~180일,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.

⊙ RP(환매조건부채권매각, Repurchase Agreement):

- 만기 90일~1년으로 보유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식을 의미 (시중은행 상호, 시중은행-중앙은행, 증권회사-일반투자자)

⊙ BA(은행인수어음, Bankers Acceptance):

-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은행을 인수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하여 유통시키는 상품으로 MMDA에 많이 편입.

2. 직접투자상품

1) 채권 (Bond):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무증서(정부, 사기업, 금융기관 발행)

⊙ 채권의 용어

- 원금(Principal): 표면금액(FV: Face Value) 또는 액면가 (Par Value)로 불리며 정해진 만기에 상환
- 만기(T: Maturity): 보통 1~20년 만기로 다양
- 이표(CP: Coupon): 채권에 표시된 확정금리이자로 보통 연간 2회 지급.

2. 직접투자상품

1) 채권 (Bond): 확정이자 채무증서

◎ 채권의 가격관련 용어

- **만기수익률(YTM)**: 채권의 발행부터 만기까지 균일하게 적용되는 시장의 요구수익률(r : 할인률)로 채권의 가격(Price)을 구하는데 사용.
- **보유기간수익률(HPR)**: 채권 보유기간의 평균수익률
- **듀레이션(Duration)**: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으로 설정한 가중평균 만기, 금리변동에 대한 채권가격변동의 비율을 나타냄. 채권가격의 금리탄력성(금리민감도)
- **볼록성(Convexity)**: YTM(가로축)과 채권가격(세로축)으로 나타낸 가격 Graph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. (좋은 특성)

1) 채권 (Bond)

◎ 이자지급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:

- **순수할인채(Pure Discount Bond):**
무이표채(Zero Coupon Bond)라고도 하며 만기에 원금(Principal, Maturity, Par Value)만 상환. 통화안정증권, 재정증권, 외국환평형기금채권, 산업금융채권, 장기신용채권 등.
- **이표채(Coupon Bond):**
보통 연간 2회의 확정금리 이표를 지급하는 고정금리 채권((Straight Bond, Level Coupon Bond)과 이표가 CD 금리에 따라 3개월 간격으로 변하는 변동금리채(Floating Coupon Bond)도 구성, 회사채, 3년 이하의 국고채 등.
- **복리채(Compounding Interest Bond):**
원금에 투자기간 복리로 환산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국민주택채권, 지역개발공채, 전신전화채권, 지하철공채, 상수도공채 등.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가격(P)의 계산식:

$$P = \frac{CP}{r} \left(1 - \frac{1}{(1+r)^T} \right) + \frac{FV}{(1+r)^T}$$

CP = 약속된 이표 지급액

FV = 약속된 액면가액

T = 채권의 만기까지 잔존하는 기간

r = 시장의 요구수익률, 이표 지급 기간 사이의 ‘**YTM**’

1) 채권 (Bond)

◎ 연금(Annuity)의 현재가치(가액)

$$S = \frac{1}{(1+r)} + \frac{1}{(1+r)^2} + \dots + \frac{1}{(1+r)^T} \quad \text{----- 식 (3-1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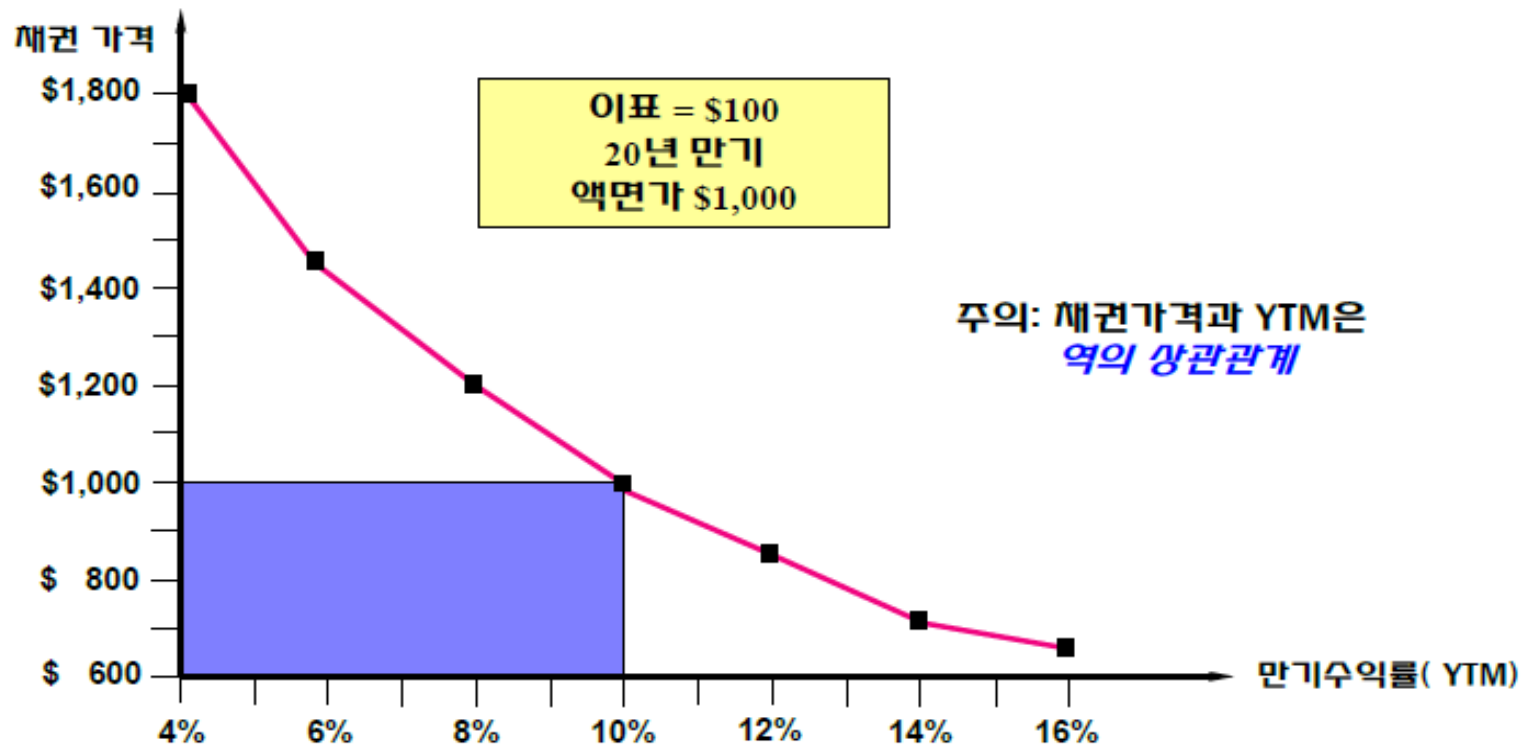
$$\frac{S}{(1+r)} = \frac{1}{(1+r)^2} + \frac{1}{(1+r)^3} + \dots + \frac{1}{(1+r)^{T+1}} \quad \text{----- 식 (3-2)}$$

$$\frac{r}{(1+r)} S = \frac{1}{1+r} - \frac{1}{(1+r)^{T+1}} = \frac{1}{(1+r)} \left[1 - \frac{1}{(1+r)^T} \right]$$

$$\rightarrow S = \frac{1}{r} \left[1 - \frac{1}{(1+r)^T} \right] \quad \text{----- 식 (3-3)}$$

1) 채권 (Bond)

<YTM과 이표채 가격의 민감도>



왜 채권가격들은 액면가액과 다른 가격들을 가지는가?

1) 채권 (Bond)

◎ 이표채의 가격에 따른 종류:

➤ 할증채권(Premium Bond):

채권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(일반 1만원)을 상회
이는 [이표금리 > YTM] 일 때, 즉 표면이자보다 실세금리가 덜 할인

➤ 액면채권(Par Bond):

채권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과 같을 경우
이는 [이표금리 = YTM]일 때, 즉 표면이자만큼을 실세금리가 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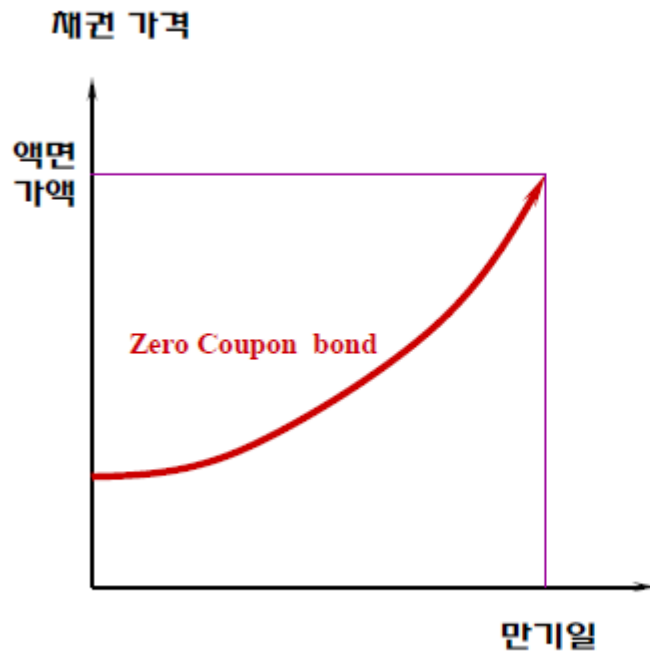
➤ 할인채권(Discount Bond):

채권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보다 작을 경우
이는 [이표금리 < YTM] 일 때, 즉 표면이자보다 더 크게 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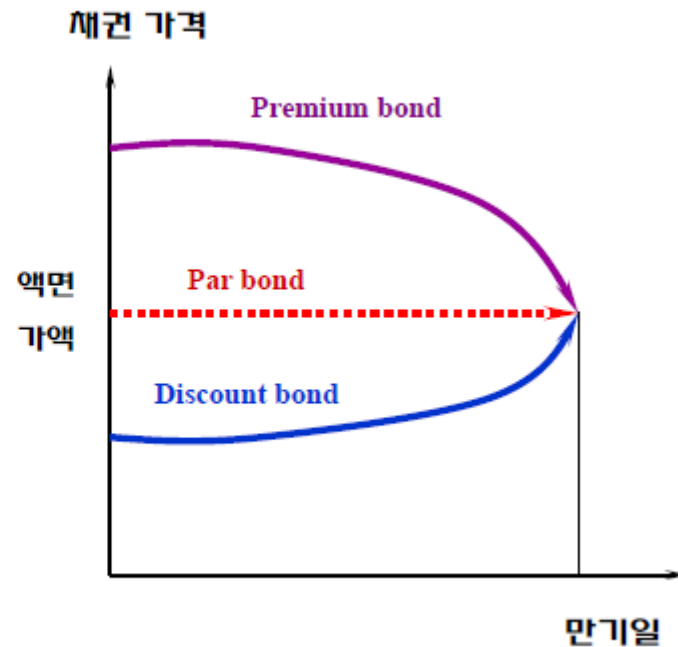
1) 채권 (Bond)

<시간경과에 따른 채권가격>

<할인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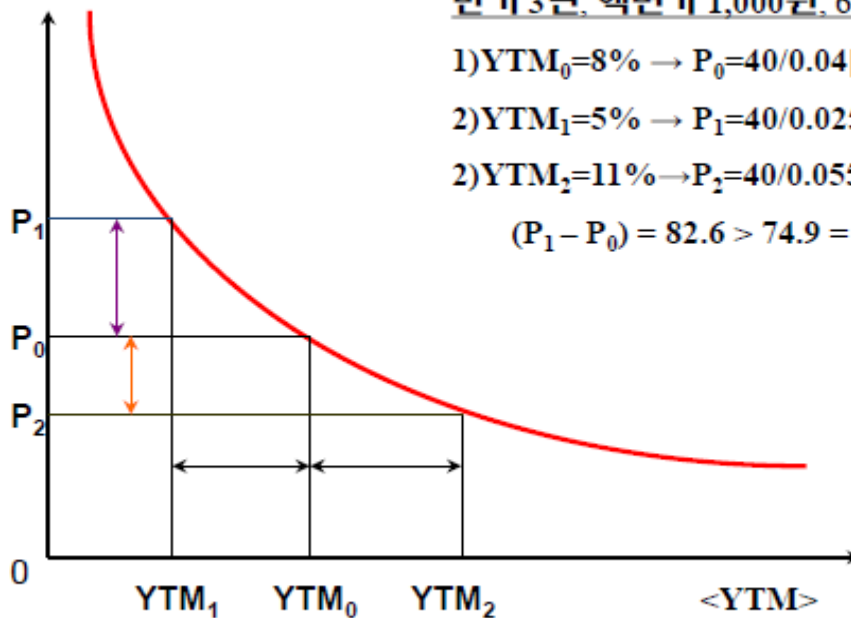
<이표채>



1) 채권 (Bond)

< 볼록성의 예시 : YTM과 이표채 가격 >

<Bond Price>



만기 3년, 액면가 1,000원, 6개월 단위 8% 표면금리의 채권 기준

$$1) YTM_0 = 8\% \rightarrow P_0 = 40/0.04[1 - 1/(1.04)^6] + 1,000/(1.04)^6 = 1,000$$

$$2) YTM_1 = 5\% \rightarrow P_1 = 40/0.025[1 - 1/(1.025)^6] + 1,000/(1.025)^6 = 1,082.6$$

$$2) YTM_2 = 11\% \rightarrow P_2 = 40/0.055[1 - 1/(1.055)^6] + 1,000/(1.055)^6 = 925.1$$

$$(P_1 - P_0) = 82.6 > 74.9 = (P_0 - P_2): \text{Evidence of Convexity}$$

※ 표면금리 vs YTM

할인채권 (A Discount Bond):

→ 표면금리 < YTM

액면채권 (A Par Bond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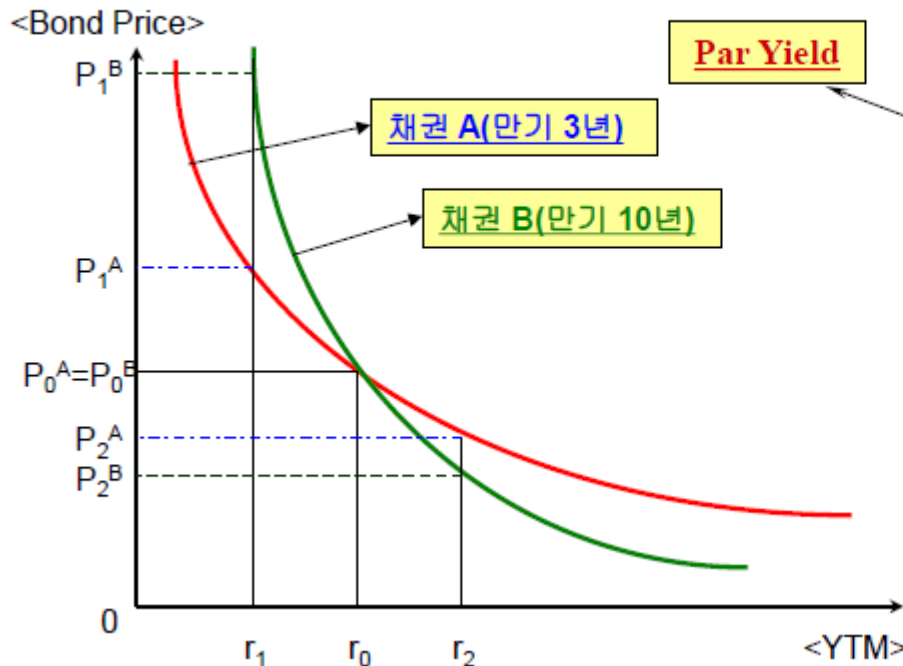
→ 표면금리 = YTM

할증채권 (A Premium Bond):

→ 표면금리 > YTM

1) 채권 (Bond)

<YTM과 채권의 만기(Maturity)>



※ 만기 3년(A), 만기 10년(B)의 채권 비교
(액면가 1,000원, 6개월 단위 8% 이표)

1) $r_0 = 8\% \rightarrow P_0^A = P_0^B$ (at Par)

$$P_0^A = 40/0.04[1 - 1/(1.04)^6] + 1,000/(1.04)^6 = 1,000$$

$$P_0^B = 40/0.04[1 - 1/(1.04)^{20}] + 1,000/(1.04)^{20} = 1,000$$

2) $r_1 = 4\% \rightarrow P_1^A < P_1^B$ (at Premium)

$$P_1^A = 40/0.02[1 - 1/(1.02)^6] + 1,000/(1.02)^6 = 1,112$$

$$P_1^B = 40/0.02[1 - 1/(1.02)^{20}] + 1,000/(1.02)^{20} = 1,327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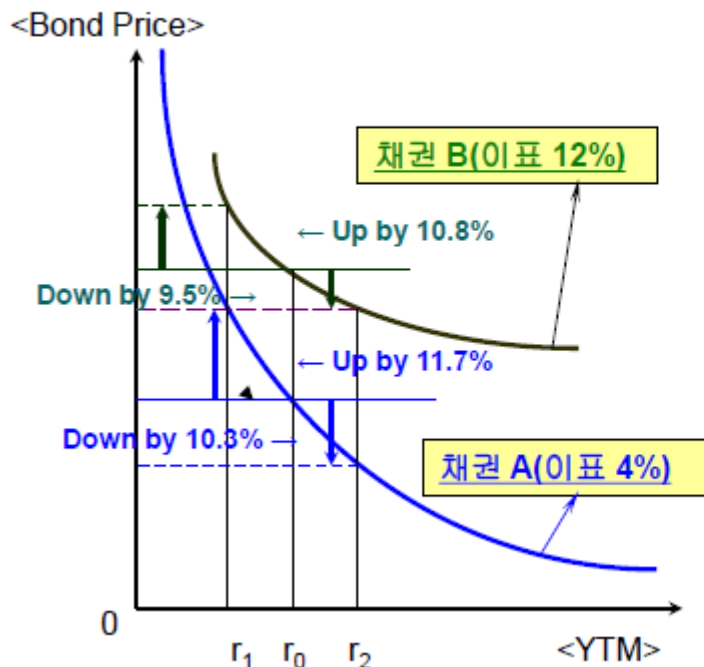
2) $r_2 = 12\% \rightarrow P_2^A > P_2^B$ (at Discount)

$$P_2^A = 40/0.06[1 - 1/(1.06)^6] + 1,000/(1.06)^6 = 901.6$$

$$P_2^B = 40/0.06[1 - 1/(1.06)^{20}] + 1,000/(1.06)^{20} = 770.6$$

1) 채권 (Bond)

<YTM과 이표금리(Coupon Rate)>



※이표 4%(A), 이표 12%(B)의 채권 비교

(만기 3년, 액면가 1,000원, 6개월 단위 이표)

1) 최초 시장금리(YTM) $r_0 = 8\%$

$$P_0^A = 20/0.04[1 - 1/(1.04)^6] + 1,000/(1.04)^6 = 895.1$$

$$P_0^B = 60/0.04[1 - 1/(1.04)^6] + 1,000/(1.04)^6 = 1,104.8$$

2) YTM 하락: $r_1 = 4\%$ (Down by 4%)

$$P_1^A = 20/0.02[1 - 1/(1.02)^6] + 1,000/(1.02)^6 = 1,000 \text{ (11.7\% 상승)}$$

$$P_1^B = 60/0.02[1 - 1/(1.02)^6] + 1,000/(1.02)^6 = 1,224 \text{ (10.8\% 상승)}$$

3) YTM 상승: $r_2 = 12\%$ (Up by 4%)

$$P_2^A = 20/0.06[1 - 1/(1.06)^6] + 1,000/(1.06)^6 = 803.3 \text{ (10.3\% 하락)}$$

$$P_2^B = 60/0.06[1 - 1/(1.06)^6] + 1,000/(1.06)^6 = 1,000 \text{ (9.5\% 하락)}$$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특성별 종류:

- **국공채, 회사채, 금융채**: 국공채는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한전, 도로공사 등의 특별법인 발행한 국채, 지방채, 특수채로 구성. 회사채는 사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발행한 사채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존재, 그리고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
- **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(Debenture)**: 신용보증기금,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와 기업의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사채
- **담보부사채와 상환기금(Sinking Fund)부 사채**: 회사 보유자산 담보가 내정된 사채와 특정 시점 이후 상환기금이 회사 내에 적립되는 사채
- **전환사채(CB: Convertible Bond)**: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
- **신주인수권부사채(BW: Bond with Warrant)**: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.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특성별 종류:

➤ 콜옵션부사채(Call Option Embedded Bond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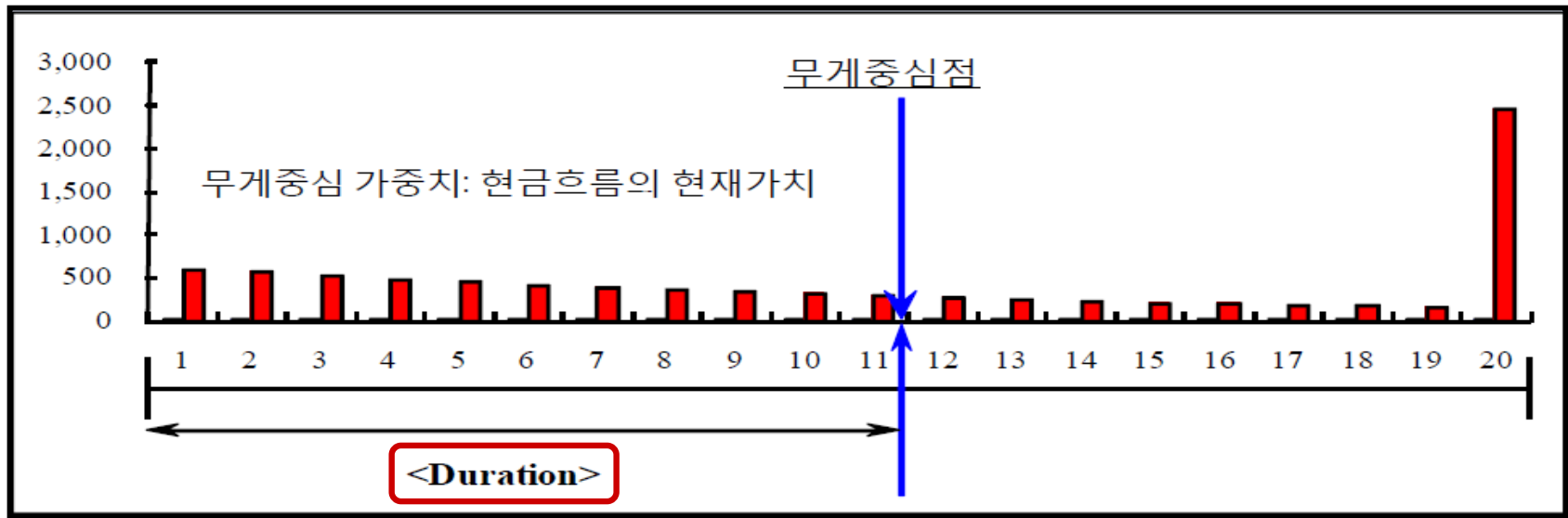
- ✓ 만기 이전 채권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(되살 수) 있는 권리가 부여된 수의상환채권.
- ✓ 시중 금리가 하락하여 발행사가 더 금리가 낮은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배려.
- ✓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므로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 당시 금리가 높게 책정함.(값이 싸게 책정함)

➤ 풋옵션부사채(Put Option Embedded Bond):

- ✓ 만기 이전 채권소지자가 발행사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요구할 수(되팔 수) 있는 채권.
- ✓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투자자가 더 싸게 채권구입 가능하도록.
- ✓ 일반 채권에 비해 값이 비싸다.(발행 금리가 더 낮다)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듀레이션 (Duration)



※ 상기 채권

- ① 액면가: 10,000원, ② 이표금리 6%(연간 1회 지급), ③ YTM 8%,
④ 만기: 20년

P=8,036원, Duration: 11.23년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듀레이션 (Duration)

$$D = \sum_{t=1}^T t \cdot w_t = \sum_{t=1}^T t \frac{(CF_t / (1+r)^t)}{P} = \frac{\sum_{t=1}^T \frac{t \cdot CF_t}{(1+r)^t}}{P}$$

※ 상기 채권

① CF (1~19) = 600원, ② CF (20) = 10,000원 ③ $r = 0.08$

④ $P = 8,036,$

→ D(Duration) = 11.23년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듀레이션 (금리민감도)

◆ 금리민감도(금리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정도)

- ① 만기가 길수록 금리민감도가 크다. (듀레이션이 커진다.)
 - 그러나 Deep Discount Bond(할인폭이 큰 할인채)의 경우 만기가 커질수록 듀레이션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. [(예제) 이표 3%, YTM 15%의 24년 만기, 25년 만기 채권]
- ② 이표금리가 작을수록 금리민감도가 크다. (듀레이션이 커진다.)
- ③ 채권 발행시점의 YTM이 작을수록(가격이 높을수록) 금리민감도가 크다. (듀레이션이 커진다.)

1) 채권 (Bon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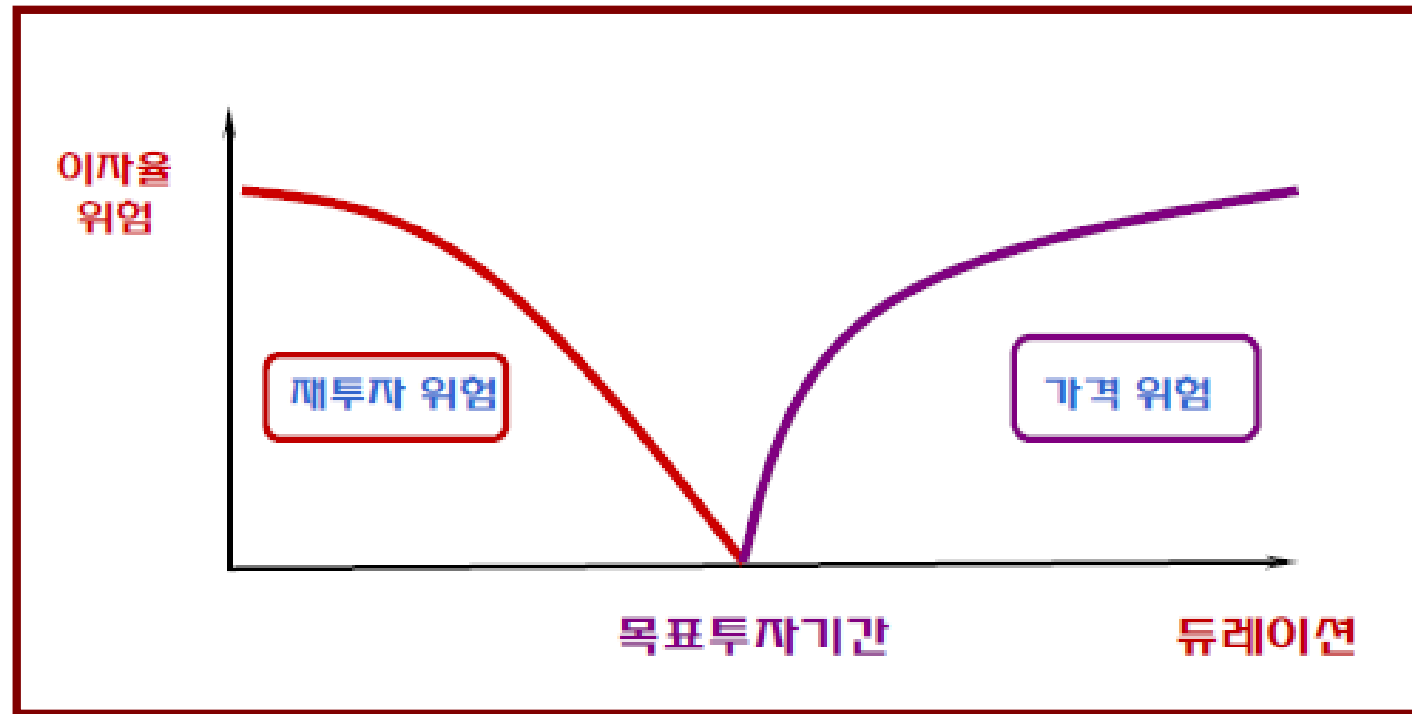
◎ 채권의 듀레이션 (금리민감도)

◆ 소극적 투자전략(듀레이션 일치화 전략)

- ①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위험과 이표에 대한 채투자수익 변동위험은 서로 반대 방향
($\because$ 금리상승 $\rightarrow$ 채권가격하락, 이표에 대한 채투자수익 증가
금리하락 $\rightarrow$ 채권가격 상승, 이표에 대한 채투자수익 감소)
- ② 이때 듀레이션을 목표투자기간과 일치시키면 금리상승 또는 금리하락 시 두 효과(채권가격과 이표에 대한 채투자수익의 변화)가 반대 방향으로 상쇄되어 없어진다.
(그러나 조기 채권구입시점에서 금리변화가 크지 않을 때만 적용 ← 이는 볼록성(Convexity)의 존재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.)
- ③ 주기적으로(예를 들어 6개월 간격으로) 남은 채권의 듀레이션을 측정하여 남은 목표투자기간과 일치되도록 지속 재조정해야 함.

1) 채권 (Bond)

◆ 소극적 투자전략(듀레이션 일치화 전략)



1) 채권 (Bon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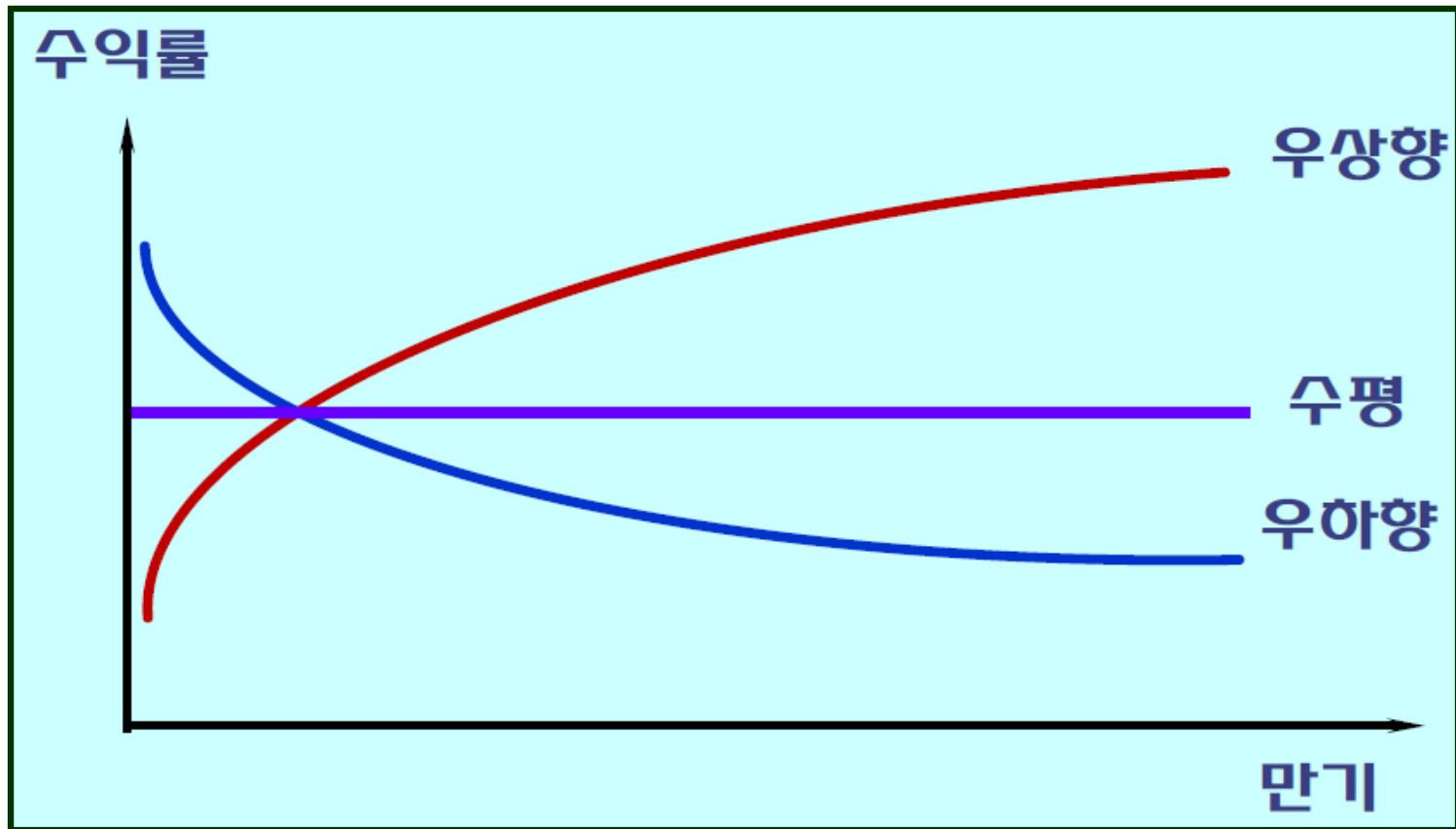
◎ 채권의 듀레이션 (Duration)

※ 듀레이션은 왜 필요한가?

- 면역전략(Immunization Strategy)에 사용(소극적 투자전략)
- 이는 목표투자기간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가치의 변화를 방지하고자 설정
- 단, 이 전략은 **지속적으로 주기(예를 들어 6개월 간격)에 맞춰 듀레이션을 계산 후 재조정**해야 하는 노력 수반. 이를 동적 재조정(Dynamic Rebalancing)이라 함.
- 특히 노년기 투자전략에서는 중요함!
- 동적 재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채권 인덱스 펀드를 편입.
- 그러나 유동성 제약, 채권의 다양성 및 고정적 가격변화의 특성으로 인해 채권 인덱스펀드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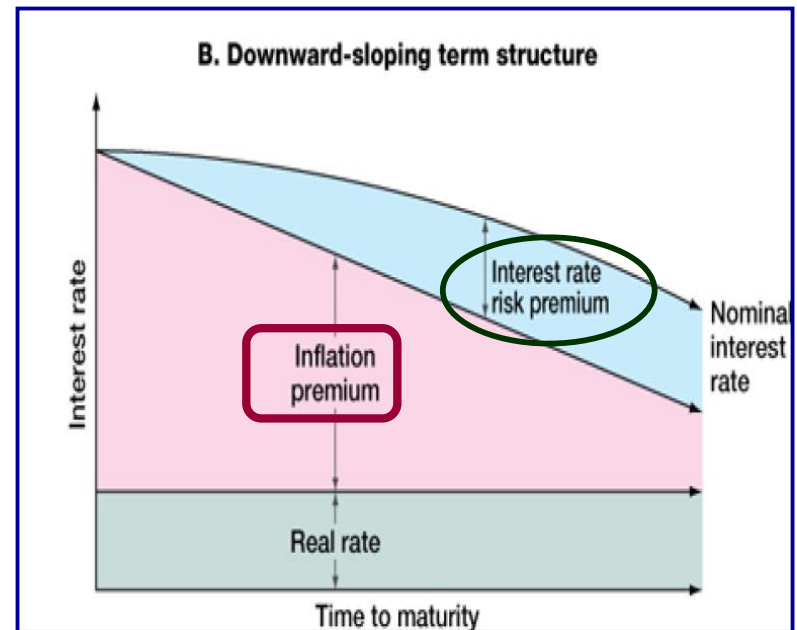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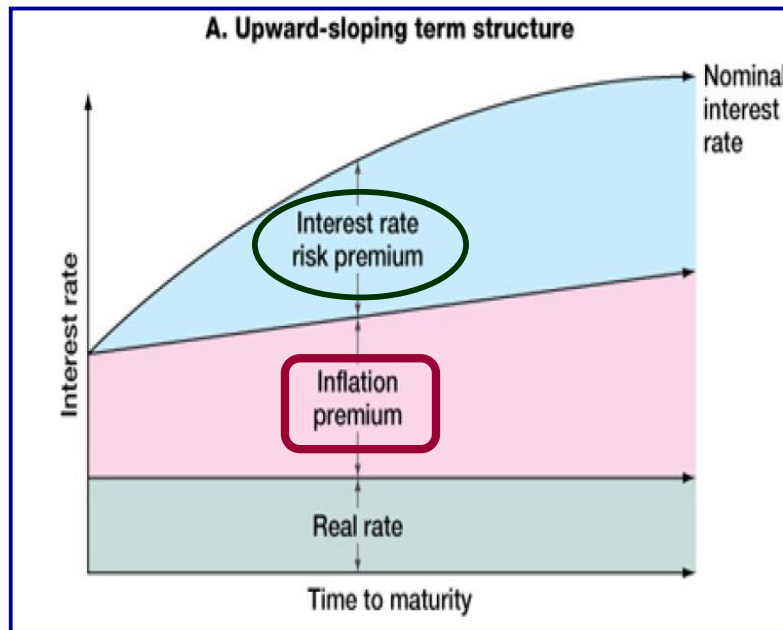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기간구조(Term Structure): 수익률곡선

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의 기간구조 (Term Structure): Yield Curve



- 위험 프리미엄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.
- 문제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인데 장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진다고 예상될수록 작아진다(이것이 작아질수록 수익률 우하향)

1) 채권 (Bond)

◎ 채권투자전략

➤ **우상향 수익률 곡선에서 (적극적 채권투자전략)**

- 1) **수익률 곡선 타기**: 긴 만기의 채권을 매수 후 보유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짧은 만기 때 매도하면 자본차익 발생, 이후 다시 긴 만기 채권 매수 → 그러나 이 전략은 전체 시장금리가 갑자기 폭등 현상을 나타내면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음.

[**(예제)** 과거 1978년 제2차 Oil Shock에서 미국의 S&L회사들 (Savings & Loan Cos)의 무더기 도산, 1994년 R. Citron의 Orange County 파산 운용 사례]

➤ **수평 수익률 곡선에서 (소극적 채권투자전략)**

- 2) **순자산면역전략**: 자산과 부채 간의 듀레이션 갭을 최소화하여 순 자산가치의 변화폭을 최소화시키는 전략. → 그러나 신용위험, 조기상환위험, 포트폴리오 재구축 거래비용, 인플레이 위험 등으로 면역전략의 달성가능성이 그리 높지 못함

1) 채권 (Bond)

◎ 적극적 채권투자전략

- **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간다.**
- ✓ 금리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듀레이션이 큰 채권은 금리 상승 시 금리민감도가 크므로 손실폭이 확대된다.
- ✓ 따라서 일단은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으로 매수하여 보유한 이후 금리상승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편입함으로써 실리를 얻을 수 있다.
- ✓ 만약 자금차입자의 경우라면 금리상승이 예상될 때 미리미리 장기 대출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받아 둔다.

1) 채권 (Bond)

◎ 적극적 채권투자전략

➤ **향후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매수.**

- ✓ 금리가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금리 하락 시 금리민감도가 크므로 이익폭이 확대된다.
- ✓ 따라서 금리 하락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채권들을 매수하면 금리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다. 이때 자금이 필요하면 매도해도 자본차익이 발생한다.
- ✓ 만약 자금차입자의 경우라면 금리하락이 예상될 때 단기 대출로 지속적으로 연장하다 금리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장기 대출로 전환한다.

1) 채권 (Bond)

◎ 적극적 채권투자전략

➤ 경기침체기 전략 (수익률 격차 확대)

- ✓ 경기침체기에는 기업부도 발생이 확대되어 불량기업의 수익률이 확대되고 우량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.
- ✓ 이 때에는 불량기업(고수익률 채권)을 팔고 우량기업(저수익률 채권)을 산다.

➤ 경기확장기 전략 (수익률 격차 축소)

- ✓ 경기확장기에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왕성해져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며 특히 우량기업의 수익률 상승이 두드러진다. 그러나 불량기업은 원래 높았으므로 수익률 상승폭은 제한적.
- ✓ 이 때에는 불량기업(고수익률 채권)을 사고 우량기업(저수익률 채권)을 판다.

1) 채권 (Bond)

◎ 노년기 채권투자전략 종합 (1)

➤ 채권은 인플레이 헤징 수단 (재산증식)

- ✓ 채권수익률에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포함
- ✓ 일반적으로 (신용)위험이 고려되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.
- ✓ 목표투자기간과 듀레이션을 일치시켜 자금 용도를 설정한다.
- ✓ 금리상승이 예견되면 가급적 만기(듀레이션)을 짧게 가져간다.
- ✓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가급적 만기(듀레이션)을 길게 가져간다.
- ✓ 경기침체기에는 우량채권(저수익률 채권) 위주로 투자한다.
- ✓ 경기활황기에는 불량채권(고수익률 채권) 위주로 투자한다.
- ✓ 가급적 채권 파생상품은 투자하지 않는다. (위험대비 수익률 낮아 투자 merit가 거의 없음)
- ✓ 국제 채권투자는 환율변동 위험이 커서 가급적 피한다. (역시 환율변동 위험이 커서 투자 merit가 낮다.)

1) 채권 (Bond)

◎ 노년기 채권투자전략 종합 (2)

➤ 채권형 펀드의 선택 기준

- ✓ 가급적 국공채 위주로 구성된) 펀드를 선택한다.
- ✓ Index펀드로는 회사채 편입은 좋으나 파생상품이 혼합되지 않는 펀드가 좋다. (5년 이상의 긴 투자기간 설정 필요)
- ✓ ELS, ELF, KIKO 등의 파생가미 펀드는 절대로 피한다! (소규모 수익 더 보려다가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)
- ✓ 국제 채권펀드를 편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진국(미국, 유럽 중심) 펀드로 국한한다. (‘Flight-to-Quality’ 가설에 따라 선진국 통화가 위기 시에는 강세를 보인다는 사실 고려)
- ✓ 세금우대형, 비과세 상품은 편입이 바람직!